

<2025년 다해>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 교회

준 비

※ 전례 봉사자

- * 해설자: 전례위원 1명
- * 독서자(예물 봉헌자 포함): 허희숙 마리아(제1독서), 김효경 릿타(제3독서), 김산영 울리아(제5독서), 김지선 소피아(제7독서), 구희선 스텔라(서간독서)
- * 보편 지향 기도: 유정연 릿타, 구희선 스텔라
- * 복사(향로·향합, 주·부복사): 4명
- * 성당 소등 및 점등, 촛불 전달할 봉사자 몇 명

※ 준비 (장소 및 내용)

- * 제의실: 제의(흰색), 향로(숯을 넣지 않은 상태)와 향합
- * 성당뒤: 예식상, 화로(예식상 옆), 집게, 파스카 초, 필기구(연필), 향덩이, 성주간·파스카 성삼일 예식서(주례사제용), 손전등(없으면 스마트폰 손전등), 초 십지 서너 개
- * 후보대: 신자용 초(신자들이 성당에 들어오면서 하나씩 가져가도록 안내)
- * 해설자: 파스카 성야 예식서, 손전등
- * 제 대: 제대포, 초6개(소등 상태), 미사경본, 성작(대제병 2개), 성수 그릇, 성수 채, 소금이 든 그릇

※ 시작 전 준비 및 공지 사항

- * 파스카 초는 독서대 앞 난간에 잘 놓을 수 있도록, 혹 기울어지지 않는지 미리 점검하여 자리를 마련한다.
- * 예식 때 불을 잘 땡길 수 있도록 미사 전에 파스카 초에 불을 한 번 붙인다.
- * 미사 전에 지휘자는 신자들과 빛의 예식(파스카 초 행렬 시) “하느님 감사합니다.”, 서간 독서 후 3회의 “알렐루야.”, 마침예식 때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설명하며 미리 연습한다.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성야의 장엄한 시작 제1부 빛의 예식

불 축복과 파스카 초의 마련

성전 입구 쪽에 예식상과 화로(숯을 미리 달궈 둠), 그리고 파스카 초와 향덩이를 준비해 놓고 예식 시작 5분 전에 성전의 불을 모두 끈다. 사제는 제의실에서 복사들과 함께 성전 입구로 이동한다. 시간이 되면 해설자는 아래의 안내로 예식을 시작한다.

▶ 해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그분의 부활을 기쁜 마음으로 경축하는 희망과 승리의 부활 성야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거행될 '제1부 빛의 예식'과 '제2부 말씀 전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례 전례'와 '성찬 전례'는 주님 부활의 의미를 잘 표현해줍니다. 먼저 우리는 빛의 예식에서 축성된 새 불을 붙인 파스카 초를 밝혀 들고 부활 찬송을 노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어둠과 죽음의 세상을 빛과 생명의 세상으로 새롭게 만드셨음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한 초를 들고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제가 예식서를 주례사제 왼쪽에서 들고, 주·부복사 중 한 명이 오른쪽에서 손전등을 비춘다. 이어 주례사제가 신자들과 함께 십자 성호를 긋고 예식에 대해 권고한다.

인사와 권고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신 거룩한 이 밤에

교회는 온 세상의 모든 자녀에게

이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신비를 경축하며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제는 팔을 벌리고 아래와 같이 기도하며 불을 축복한다.

불 축복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사랑의 불을 놓아 주셨으니

새로 마련한 이 불을 ✕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며 천상의 삶을 갈망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원한 빛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새 불을 축복한 다음에 주복사가 파스카 초를 비스듬히 뉘어 잡는다. 사제는 파스카 초에 필기구로 먼저 십자를 긋고 십자 위에 그리스 글자 A, 십자 밑에 Ω를 쓴 다음 십자의 팔 위와 아래 칸에 그해 연도의 네 숫자를 한 자씩 쓰며, 그 사이사이에 아래와 같이 말한다.

파스카 초 준비

1. 주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십자의 세로줄을 새기며)

2. 시작이며 마침이시고 (십자의 가로줄을 새기며)

3. 알파이며 (십자의 세로줄 맨 위에 A를 새기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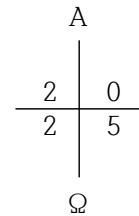
4. 오메가이시고 (십자의 세로줄 맨 아래에 Ω를 새기며)

5. 시간도 (십자의 왼쪽 위 칸에 그해 연도의 첫 숫자를 새기며)

6. 시대도 주님의 것이오니 (십자의 오른쪽 위 칸에 둘째 숫자를 새기며)

7. 영광과 권능이 (십자의 왼쪽 아래 칸에 셋째 숫자를 새기며)

8. 영원토록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십자의 오른쪽 아래 칸에 마지막 숫자를 새기며)



사제는 십자와 다른 글자들을 새기고 나서 초에 파 놓은 구멍에 향뎡이를 십자 모양으로 하나씩 순서대로 꽂으며 말한다.

- | | | | | |
|-----------------|---|---|---|---|
| 1. 주 그리스도님, | 1 | | | |
| 2. 거룩하시고 | | | | |
| 3. 영광스러우신 상처로 | 4 | 2 | 5 | |
| 4. 저희를 지켜 주시고 | | | | |
| 5. 보살피 주소서. 아멘. | | | | 3 |

이제 사제는 새 불에서 파스카 초에 불을 뎡기면서 아래와 같이 기도한다.

파스카 초 점화

†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님,

이 빛으로 저희 마음과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소서.

행렬

주례사제가 파스카 초에 불을 댕기면 봉사자 한 사람이 화로에 든 숯을 집게로 집어 향로에 넣는다. 이어 주례사제가 향로에 향을 넣으면 공동집전사제가 파스카 초를 들고 행렬을 시작한다. 행렬은 향로 복사가 먼저 앞장서고 그 뒤에 파스카 초를 든 사제가 뒤따른다. 신자들 초에는 아직 불을 붙이지 않는다.

주복사(초1)
[성당] ← 향로 복사, 파스카 초(사제), 주례사제, 향합 복사
부복사(초2)

행렬 준비가 끝나면 해설자가 안내한다.

▶ 해설: 이제 곧 행렬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불기둥을 따라 어두운 사막을 헤쳐 나갔듯이,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빛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인 파스카 초를 통해 주님의 빛을 맞이합시다.

해설자의 안내가 끝나면 성전 입구에서 사제는 파스카 초를 높이 들고 노래한다.

+ 그리스도 우리의 빛.

모두 응답한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례사제는 파스카 초에서 불을 댕겨 자기 초에 붙인다.

그다음 사제는 성당 가운데에 서서 파스카 초를 높이 들고 두 번째로 노래한다.

+ 그리스도 우리의 빛.

모두 응답한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스카 초를 든 사제 양 옆에 선 초복사들이 파스카 초에서 불을 댕긴 심지를 다른 봉사자들에게 주면 봉사자들이 양편 신자들에게 불을 댕겨 준다. 신자들의 초에 불을 다 댕길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행렬을 계속한다.

이어서 사제는 제대 앞에 이르러 교우들을 바라보고 서서 세 번째로 노래한다.

+ 그리스도 우리의 빛.

모두 응답한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제는 독서대 앞 난간에 마련된 곳에 파스카 초를 놓고 독서대로 이동한다. 그리고 성당 안의 불을 모두 켜다. 다만 제대 초는 켜지 않는다.

파스카 초가 행렬하여 성당 뒤편을 떠나면 다른 전례위원은 예식상을 치우고 예물 봉헌(주수병, 제병이 든 성합)을 준비해 놓는다.

파스카 찬송

파스카 초를 들고 행렬한 사제는 독서대로 이동하고 주례사제는 제대에 서며 향복사는 독서대로 가서 분향 준비를 한다. 사제는 예식서와 초에 분향하고 파스카 찬송을 한다. 이때 모든 신자들은 손에 촛불을 켜 들고 서 있다. 사제가 분향을 하는 동안 해설자가 안내한다.

- ▶ 해설: 드디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심으로써, 아담과 함께 죄와 어둠과 죽음의 세상에 있던 우리를 결백과 빛과 생명의 세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제는 이 위대한 사랑과 승리의 기쁨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부활 찬송을 노래하는 동안 신자분들께서는 초를 잘 들고 서 계시기 바랍니다.

분향을 마치고 사제는 파스카 찬송을 한다.

- + 용약하여라, 하늘 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여라, 천상의 거룩한 영들아.
구원의 우렁찬 나팔 소리,
선포하여라, 위대한 임금의 승리.

.....

-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 + 마음을 드높이.
- ◎ 주님께 올립니다.
-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와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소리 높여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 아멘.

제2부 말씀 전례

사제의 파스카 찬송이 끝나고 말씀 전례가 시작된다. 독서는 1,3,5,7독서 그리고 서간 독서를 봉독한다. 파스카 찬송이 끝나면 해설자가 안내한다.

▶ 해설: 모두 손에 든 촛불을 끄십시오. 지금부터 주례사제의 권고에 따라 말씀 전례가 시작되겠습니다.

신자들은 들고 있던 촛불을 끈다. 독서가 시작되기 전에 사제는 아래의 말로 권고한다.

+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성야 예식을 장엄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파스카 성야에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조용한 마음으로 들읍시다.

하느님께서 일찍이 당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마침내 어떻게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는지 깊이 묵상합시다.

또한 파스카로 이룩한 이 구원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완성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권고가 끝나면 해설자는 아래의 말로 안내한다.

▶ 해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각각의 독서 봉독이 끝나면 성가대에서 시편을 노래한다. 그 뒤에 모든 신자들이 일어서고, 사제는 '기도합시다'하며 잠깐 침묵한 다음 '독서 후 기도'를 바친다.

제1독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1.26-31ㄱ(짧은 독서)

¹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²⁶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²⁷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²⁸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²⁹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30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³¹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4(103),1-2,7,5-6,10과 12,13-14,24와 35ㄷ(◎ 30 참조)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존엄과 영화를 입으시고, 광채를 겹옷처럼 두르셨나이다. ◎
- 땅을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시니, 영영 세세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바다로 땅을 옷처럼 덮으시니, 산 위까지 물이 가득 찼나이다. ◎
- 골짜기마다 샘물 터뜨리시니, 산과 산 굽이굽이 흘러내려, 하늘의 새들은 그 곁에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나이다. ◎
- 당신 거처에서 산에도 물 대시니,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나물 돋게 하시나이다. ◎
-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그 모든 것 당신 슬기로 이루시니,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 해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제1독서 후 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놀라우신 섭리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니
한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업적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신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제3독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땅을 걸어 들어갔다.>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 이 독서는 결코 생략할 수 없다.) 14,15-15,17
그 무렵 ¹⁵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¹⁶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¹⁷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¹⁸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¹⁹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 섰다. ²⁰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 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²¹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거센 섯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²²이스라엘 자

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²³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²⁴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²⁵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²⁶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²⁷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처넣으셨다. ²⁸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 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²⁹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³⁰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³¹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15.1}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독서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를 생략하고, 성가대는 바로 화답송을 한다.

화답송

탈출 15.1ㄷㄹㄱ-2.3-4.5-6.17-18(© 1ㄷㄹ)

-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조상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
-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뛰어난 장수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
-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당신 오른손이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니, 주님, 당신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나이다. ◎
- 당신은 그들을 데려오시어,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주님, 그 산은 당신 거처로 삼으신 곳, 주님 손수 세우신 성소이옵니다. 주님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나이다. ◎

▶ 해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제3독서 후 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그 옛날 이집트에서 이루신 기적을 오늘도 보여 주시니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새로 나는 세례의 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으시어
 온 세상 사람이 선택된 민족의 총명한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5독서

<나에게 오너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5,1-1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¹“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²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³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⁴보라, 내가 그를 민족들을 위한 증인으로, 민족들의 지배자와 명령자로 만들었다. ⁵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⁶만나 볼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⁷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없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십니다. ⁸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⁹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¹⁰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¹¹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이사 12,2-3.4ㄴㄷㄹ.5-6(◎ 3)

-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 해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제5독서 후 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느님께서
오늘 거행하는 이 신비를 예언자들을 통하여 알려 주셨으니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며 구원의 길을 견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7독서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6.16-17 ㄱ.18-28

¹⁶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¹⁷“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에 살 때, 그들은 자기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¹⁸그들이 그 땅에 쏟은 피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며 섬긴 우상들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부었다. ¹⁹그래서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 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 버렸다. 그들의 길과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였다. ²⁰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이자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그분 땅에서 나와야만 했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²¹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이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 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걱정하게 되었다.

²²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 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²³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²⁴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²⁵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²⁶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²⁷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²⁸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42(41),3.5 ㄱ.ㄴ.ㄷ.ㄹ; 43(42),3.4(◎ 42(41),2)

-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뵈오리이까? ◎
- 영광의 초막, 하느님의 집까지, 환호와 찬미 소리 드높은 가운데 축제의 무리와 행진하였나이다. ◎
-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산,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

-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오리다.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파 타며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 해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제7독서 후 기도

+ 기도합시다.

영원한 빛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놀라운 구원의 성사인 교회를 굽어보시고
영원으로부터 마련하신 인류 구원을 이루시어
넘어진 것이 일어나고 낡은 것이 새로워지며
만물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완전해짐을
온 세상이 보고 깨닫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대영광송

제7독서 후 기도가 끝나면 향복사들은 파스카 초에서 불을 땡겨 제대 초에 불을 켜고, 이어 주례사제가 대영광송을 시작하면 주복사는 성가대에서 화려한 간주를 하는 동안 종을 친다. 화려한 대영광송이 끝나면 주례사제는 본기도를 바친다.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 거룩한 밤을 비추셨으니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저희 모두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

◎ 아멘.

▶ 해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 독서자가 서간을 봉독한다.

서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6,3-11

형제 여러분, ³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⁴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⁵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될 것입니다.

⁶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⁷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⁸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⁹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¹⁰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¹¹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서간 봉독이 끝나면 해설자는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 **해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부활의 기쁜 소식이 복음을 통해 장엄하게 선포됩니다.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다 함께 기쁨의 알렐루야를 다시금 장엄하게 외칩니다. 사제의 선창에 따라 성가대와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해설자의 안내가 끝나면 복음을 봉독할 사제가 독서대로 간다. 거기서 사제는 목소리를 차츰 높여 가며 알렐루야를 성대하게 세 번 선창하고 그때마다 성가대가 되풀이한다.

복음 환호송

시편 118(117),1-2.16-17.22-23

성가대에서 시편 118(117)편을 노래한다.

-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알렐루야를 노래하는 동안 향복사들은 독서대로 이동하고 사제는 알렐루야가 끝나면 파스카 초와 복음서에 분향한다.

복음

다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되살아나셨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1-12

- 1 주간 첫날 새벽 일찍이 그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 2 그런데 그들이 보니 무덤에서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 3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4 여자들이 그 일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으로 숙이자 두 남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6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래아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7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8 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었다.
9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10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안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11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12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 낭독이 끝나면 해설자가 안내한다.

▶ 해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3부 세례 전례

주례사제의 강론이 끝나면 곧바로 물을 축복하고 세례 전례를 거행한다.
해설자는 아래의 해설을 한다.

- ▶ 해설: 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세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 새롭게 받아들이기 위해 세례 서약 갱신을 합니다. 사제는 먼저 물을 축복하고, 이어서 온 공동체는 세례 때의 서약을 다시 발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의 세례를 갱신하게 됩니다.

물 축복

주례사제는 아래와 같이 신자들을 물 축복으로 이끈다.

- +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념하여 뿌릴 이 물에
하느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받은 성령께 충실히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잠깐 침묵하다가 사제는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주 하느님,
이 거룩한 밤을 지새우는 주님의 백성을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인간을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는 저희를 위하여 이 물에 ✕ 강복하소서.
주님께서는 이 물을 만드시어 땅을 비옥하게 하시며
사람이 마시고 몸을 씻게 하셨나이다.
또한 이 물로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막에서는 그들의 갈증을 풀어 주셨나이다.
예언자들은 이 물로
주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실 새로운 계약을 미리 알려 주었나이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요르단 강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재생의 세례를 마련하시고
부패한 인간 본성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물로 저희가 이미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새로 세례를 받은 형제들과 파스카의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사제는 물 축복 때에 넣을 소금을 아래의 기도로 축복한다.

- +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일찍이 예언자 엘리사를 시키시어
물에 소금을 넣어 썩지 않게 하셨으니
간절히 청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의 자애로 이 소금에 ✕ 강복하소서.
주님,
소금이 든 이 성수를 뿌리는 곳이면
어디서나 성령께서 함께 계시어
원수의 온갖 공격을 물리치고
언제나 저희를 보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이어서 사제는 말없이 소금을 물에 넣는다.

세례 서약 갱신

이어서 복사들은 사제의 축복 기도가 끝나면 바로 부활초에서 심지에 불을 붙여 신자들의 초에 불을 붙여 준다. 신자들은 촛불을 켜 손에 들고 서서 세례 때에 한 신앙의 약속을 새롭게 한다.

- ▶ 해설: 촛불을 받아 주위에 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의 촛불을 손에 들고 세례 때에 맹세한 신앙의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모두 세례 때의 마음자세를 되새기며, 악을 끊고 굳은 신앙을 고백하며, 부활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엄숙히 약속합니다.
사제의 질문에 “예, 끊어 버립니다.”,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제는 아래의 말이나 비슷한 말로 신자들에게 권고한다.

-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세례로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순 시기의 여정을 마치며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 버리고
거룩한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합니다.

- +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자 죄를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악의 유혹을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 죄의 근원인 마귀를 끊어 버립니까?

Ⓞ 예, 끊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사제는 계속하여 묻는다.

+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사제는 아래의 기도로 끝을 맺는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지켜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아멘.

이어서 사제는 신자들에게 성수를 뿌린다. 해설자는 아래의 해설을 한다.

▶ 해설: 우리가 첫 세례 때 물로 세례를 받았듯이, 지금은 세례 서약 갱신을 하고 성수를 받습니다. 이 물로써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다시 태어난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사제가 제단에서 내려와 여러분에게 성수를 뿌립니다. 이때 성수를 받는 분들은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십자성호를 그으면 되겠습니다.

예절이 진행되는 동안 성가 67번을 성가대에서 노래하겠습니다.

(Ⓞ 성전 오른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았네. 알렐루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두 구원을 받았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제가 성수를 다 뿌리고 제단 위로 올라오면 복사는 성수를 받아 주수대로 옮겨놓는다. 해설자는 아래의 해설을 한다.

▶ 해설: 모두 촛불을 꺼 주십시오. 이어서 보편지향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해설자의 안내가 끝나면 주례사제는 보편 지향 기도 권고를 한다.

보편 지향 기도

○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교회가 온갖 죄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당신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생명을 바쳐 구원하신 이 세상이 서로 갈라져 불목하고 있사오니 주님 부활의 평화와 은총을 서로 나누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본래 모습을 되찾아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소서. ◎

○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으로 승리하셨사오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용기를 잃은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나눠주시어, 삶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함을 주소서. ◎

○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희망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청하오니, 저희가 받은 부활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저희 각자의 삶 안에서 이웃과 친교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

제4부 성찬 전례

보편지향기도가 끝나면 해설자가 봉헌 안내를 하고, 사제는 제대로 가서 보통 때처럼 성찬 전례를 시작한다.

- ▶ 해설: 모두 촛불을 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이웃돕기 2차헌금이 있습니다. 봉헌 봉투 왼편에는 본 헌금을, 오른편에 2차 헌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성가는 128번입니다.

제대와 예물 준비

예물 준비 기도

예물 기도

- + 주님, 저희가 바치는 기도와 제물을 받아들이시어
오늘 시작하는 이 파스카 신비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 ◎ 아멘.

감사 기도

감사송 <부활감사송1>

-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 마음을 드높이. ◎ 주님께 올립니다.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밤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향복사들은 '거룩하시도다'가 시작되면 분향 준비를 하고 제대 아래에서 거양성체와 성혈 때 분향한다. 주복사는 주일 미사 때와 같이 제대 옆에서 타종한다.

영성체 예식

하느님의 어린양

영성체

사제의 영성체가 끝나면 해설자는 성체성가를 안내한다.

▶ 해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174번입니다.

영성체 후 기도

+ 주님,
저희가 파스카 성사로 힘을 얻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 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 ◎ 아멘.

마침 예식

파스카 성야의 모든 예식이 끝나면 주례사제는 아래와 같이 장엄강복을 한다. 신자들은 ‘아멘’이라고 응답한다.

장엄강복

+ 전능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오늘 부활 대축제를 지내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온갖 죄의 위협에서 자비로이 보호하여 주소서. ◎ 아멘.
+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신 하느님께서서는
이 교우들을 불사불멸의 상급으로 채워 주소서. ◎ 아멘.
+ 주님의 수난 시기를 마치고
부활 축제를 기쁘게 거행하는 이 교우들을
영원한 기쁨의 천상 축제로 이끌어 주소서. ◎ 아멘.
+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 아멘.

파견

파견 때에 사제는 교우들을 바라보고 노래하거나 말한다.

+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어서 해설자가 안내한다.

▶ 해설: 주님 부활의 영광을 기념하는 파스카 성야 미사를 통해 우리에게 빛과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130번을 노래하겠습니다.

파견성가 후,

▶ 해설: 이상으로 주님 부활 파스카 성야 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주님 부활 대축일 낮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